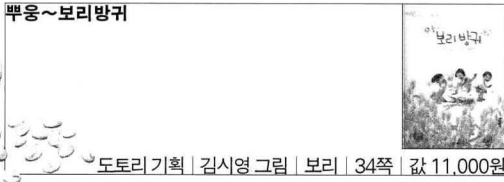


< 보리가 풍년이면 방귀도 풍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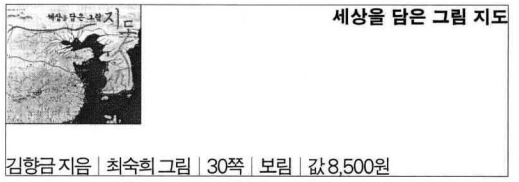
세 명의 아이가 보리밭에 앉아 익은 보리를 구워 먹고 있습니다. 여자아이 둘, 남자아이 한 명이지요. 그런데 여자아이 하나는 코를 막고 있고, 또 한 명의 여자아이는 잔뜩 이마를 찌푸린 채 손을 절레절레 흔들고 있네요. 장난꾸러기 남동생이 보리를 먹고 방귀를 끼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표지는 맛있는 보리밥을 먹고 '뿌웅' 소리를 내 방귀를 내뿜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책을 펼치면 보리는 물론, 보리가 자라는 계절과 보리 주변에서 자라는 생명체들, 보리로 해먹을 수 있는 음식들까지 '보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소개돼 있지요.

보리는 참 강인합니다. 웬만한 추위도 잘 버텨내지요. 어린 싹으로 겨울을 나는 보리는 서리가 내려도 죽지 않습니다. 간혹 찬바람에 잎이 오그라드는 일이 있긴 하지만 뿌리만은 튼튼하게 살아남습니다. 눈이 내리면 추워서 죽을지도 모르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이불삼아 잘 덮고 잘 수 있으므로 추위를 모른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란 보리는 옛 서민들의 주식량이었습니니다. 지금이야 쌀밥이 흔하지만 예전에는 명절이 되어서야 겨우 쌀밥을 먹을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보리밥을 먹는 날. 그날은 온 집안에서 방귀소리가 들립니다. '뿌룩뿌룩' 거품 방귀부터 '피이' 하는 도둑 방귀까지. 햇보리쌀로 된 밥을 양푼 가득 담고 된장으로 잔뜩 비벼먹은 맛이지요.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읽힙니다. 보리농사 짓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가 하면, 보리로 만든 먹을거리들을 잔뜩 담아 보여주고, 보리밭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소개하는가 하면, 어느새 그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담아냅니다. 보리를 둘러싼 정겨운 풍경들을 감상하면서 보리라는 곡식의 모든 면을 만나봅시다.

< 지도 속에 숨은 세상 발견하세요 >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이야 인터넷으로 가고 싶은 곳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인터넷은 물론 컴퓨터도, 전기도 없던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먼 길을 찾아다녔을까요?

시골에서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야 할 때, 갑자기 쳐들어온 적을 무찌르러 나갈 길을 찾을 때, 장사하기 좋은 장소를 찾을 때. 옛 사람들은 이때마다 '지도'를 펼쳤답니다.

이 책은 지도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땅에서 어떻게 지



도가 생겨나고 어떻게 쓰였으며 어떤 다양한 지도들이 나왔는지를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지요. 본래 지도는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던 원시시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길을 잘 기억해 두기 위해 나뭇가지를 꺾어두거나 돌맹이를 세워 표시를 해놓았는데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나뭇가지며 돌맹이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동서남북 방향을 표시하고 일정한 비율로 거리를 재서 지도를 완성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거리, 자주 찾는 상점, 학교까지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지도 속에 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런 지도의 탄생을 따라가다 보면 인류가 자신의 '편리'를 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한 과정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들어왔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도성도 등 대표적인 우리 옛 지도를 만나는 기회도 줍니다.

지도의 역사를 감상하면서 우리동네 지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려보세요. 동네 곳곳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맛있는 음악 공부

김한경글 | 허태준 그림 | 주대창김수 | 청년사 | 174쪽 | 값 12,000원

100년 후에도 읽고 싶은 한국명작동화

한국명작동화선정위원회 엮음 | 박지훈·박철민·한태희 그림 |



예림당 | 368쪽 | 값 10,000원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도 없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처럼 숫자와 공식이 필요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이를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하면 비교적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지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자, 음표, 쉼표, 오페라와 뮤지컬, 발레음악의 차이점을 달달 외운다 해서 이것들이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이론의 단순이해보다는 음악가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슬슬 꺼내놓으면서 서양 음악이론을 '맛있게' 씹는 법을 알려줍니다.

〈엘리제를 위하여〉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클래식 음악 중 하나이지요.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피아노를 못 치는 친구라

할지라도 '엘리제'라는 이름은 알

겁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피아노 독주곡인 〈엘리제를 위하여〉의 원래 제목이 '테레제'를 위하여였다는 것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이 책은 이렇게 음악 속 숨은 장면들을 찾아가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 후 '이론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라 무조건 재미만 좇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음악가'로만 알려져 있던 베토벤이 자신의 제자였던 백작의 딸 테레제를 사랑했고 신분의 벽 때문에 좌절했다는 후설을 들으면서 그의 음악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과 악수하는 기회도 전해주지요. 여러분은 이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통,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을 감내한 자의 음악을 새롭게 감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감상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요. 뒷 페이지를 펼치면 엘리제를 위하여에 사용된 악보 기호들을 알려주니 악보를 읽는 방법도 익히고 가야 합니다.


유명 음악가 20명의 생애와 그들 삶의 숨겨진 흔적들은 물론이고 서양음악 이론까지 배우게 해주는 '팔방미인' 같은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린이책 역사가 짧습니다. 대표적인 성인소설 작가를 말하라 하면 단번에 이름을 대는 사람들이 많지만 동화작가 대표를 손꼽으라고 하면 어른들도 쉽게 대답을 못하지요. 그러나 잘 찾아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리 창작동화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금쪽같은 우리 동화를 캐내 한자리로 초대합니다. 흔히 예전 아이들이 읽었던 동화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전쟁, 배고픔 등의 상투적인 이야기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모인 작가 30명의 작품은 최근에 나온 동화들보다 더 신선한 소재로 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깊이 있는 주제까지 던져주고 갑니다.

첫 번째 작품인 '만년사썩'을 예로 들까요. 이 책의 주인공인 창남이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능청스럽고 만사에 태평스런 태도를 가진 친구입니다. 가난해도 주눅들지 않고 다 해져 너털거리는 구두앞코에 대님을 감고 나타나 아이들을 웃기기도 하고, 추운 겨울날 체조 시간에는 '만년사썩' 차림으로 등장하는 재미있는 친구이지요. 여기서 만년사썩란 '맨몸'을 의미하는데 창남이네 동네 이웃집이 불에 타자 이웃을 위해 옷을 다 내준 창남이는 만년사

썩를 입고 오지요. 물론 이 밖에도 더 기특하고 애절한 사연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길의 끝을 보고 싶어하는 청개구리가 버스를 타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철학적인 글(〈청개구리와 막차〉)도 있고 한국동화 특유의 해학이 넘쳐나는 작품(〈가자미와 복장이〉)도 소개됩니다.

모처럼 우리 한국 아동문학사를 정리하면서 개성 있는 스토리로 철학적이고 무게감 있는 주제를 담아낸 작품들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김청연 기자

